조계종, 총선 앞 정책 제안 자료집 공개

선명상 보급 · 공원 내 복합유산 특성 반영 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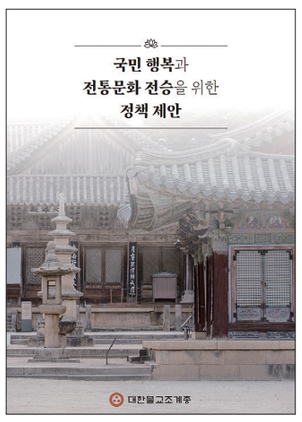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우울증 환자 100만 명 돌파
선진국의 명상 인구 지표로
선명상 대중화 당위성 밝혀
문화유산 보전 과제도 정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계종이 총선을 대비한 정책 제안 자료집〈사진〉을 발간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 행복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3월 13일 공개했다. 자료집 목차는 크게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 △전통문화의 안정적 전승 △문화유산 지원 강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림 보존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이라는 5개 장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온 선명상 보급이 자료집 첫머리를 장식했다.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선명상 보급'을 첫 정책으로 제안한 조계종은 국민 정신건강 정책 일환으로 선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2022년 말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세계 선진국의 1년간 명상 체험 비율이 인구의 15%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표를 제시했다. 이어 "종단은 인간 소외와 정신 불안의 시대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주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보급해 국민 정신건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전국의 명상센터, 템플스테이, 사찰 등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선명상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통사찰과 관련해서는 보수지원 사업 자부담률의 10% 고정, 문화향유 이바지를 위한 별도의 전기료 체계 정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방식의 '손실보상' 또는 '문화유산관리비 보전'으로의 전환 △문화재청 내 불교문화유산 전담조직 신설 △일반동산문화유산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 확대 △사찰림 가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공원 내 복합유산 특성 반영을 강조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으로는 호국의승의 날 제정과 호국불교기념관 건립을 내세웠다. 임진왜란과 6·25한국전쟁 등 전란에 참여한 수많은 의승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펼친 스님들의 희생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조계종은 매년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기리는 만큼 '호국의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의승을 추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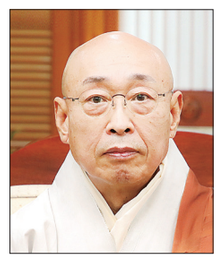
이밖에 일제강점기 왜곡되고 어긋난 종교 정책과 미군정의 편향적인 적산불하 등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용산공원 내 불교문화시설 건립 지원'과 희생자의 정의를 사람으로 한정해 사찰 자체 피해보상 근거가 전무한 제주4·3특별법, 여순10·19사건특별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계종은 정책 제안 자료집을 각 교구본사와 주요 수말사, 직영사찰을 비롯해 각 정당의 중앙당, 국회의원 불자후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흥사·동화사·백양사 주지 임명

지혜 · 혜정 · 무공 스님 각각 임명장 받아


지혜 스님


혜정 스님


무공 스님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에 각각 지혜 스님과 혜정 스님, 무공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혜 스님과 혜정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무공 스님은 13일 임명장을 받았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혜 스님에게 "신흥사는 명성만큼 스님과 종도의 관심이 높은 곳"이라며 "주지스님이 안팎으로 잘 살펴 가람수호와 대중화합을 잘 이끌고 포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지혜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의 말씀대로 주지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혜정 스님에게 "동화사가 대구불교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방장스님을 잘 모시고 영남포교 일선에서 적극적인 전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혜정 스님은 "방장스님과 총무원장스님의 말씀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또 무공 스님에게 "백양사는 지금도 선도량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는 사찰"이라며 "지난 임기동안 교구발전과 가람수호, 포교에 진력해 온만큼 앞으로도 대중화합과 종단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공 스님은 "지난 임기동안 아쉽게 실행하지 못한 계획을 실행하고 포교와 수행에 전념해 문도화합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우 기자

조직개편 종헌개정안 전국 교구 공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종회 앞 교구 관심 · 지원 당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종헌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종헌에서 삭제해 총무원의 중앙종무기관 단일화 작업을 추진 중인 조계종 총무원이 중앙종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국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종헌개정안을 공유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교육원과 포교원 조항을 삭제한 종헌개정안을 안내했다. 회의에는 군종특별교구와 해외특별교구를 포함한 27개 본사 가운데 제9교구본사 동화사를 제외한 모든 교구장스님들이 참석했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사회국장 법륜 스님이 대리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3월 19일 개원하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가장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 종헌개정안을 전국 교구와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앞서 중앙종회 미래특위와 함께 수차례 회의를 거쳐 종헌개정안을 성안하고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집행부는 종단의 미래를 열기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중앙종무기관의 미래지향적 설계를 위한 종단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종헌개정안을 3월 임시회에 제출했다"며 "중앙종회 종단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내용을 성안하고, 집행부 차원에서 입법예고를 거쳐 내용을 확정했다. 본사주지스님들께서는 이미 지난 1월 의견을 모아주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의 미래를 위해 전법과 승가교육에 종단적 역량을 결집하고, 단일화된 대응을 하기 위해 행정기관인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전법을 위한 조직시스템을 재편하고 스님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전문화하겠다. 교구장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무원은 '중앙종무기관의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위한 종단 조직 개편'이라는 안내문도 배포했다. 자료에는 △1994년 종단 개혁의 성과 △급변하는 현 사회 △대응방향 △포교신도단체 집중관리 실현 등 중앙종무기관 통합의 당위성을 정리했다.

윤호섭 기자

법주사 주지후보 정덕 스님 선출

산중총회서 6표 차로 원경 스님 누르고 당선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차기 주지후보로 기호1번 정덕 스님이 당선됐다.

법주사는 3월 8일 경내 선불장에서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정덕 스님을 주지 후보자로 선출했다. 산중총회는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를 비롯해 구성원 285명 중 15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주지 후보자로는 당초 기호1번 정덕 스님, 기호2번 황석 스님, 기호3번 노현 스님, 기호4번 원경 스님이 등록했지만 노현 스님이 3월 6일 사퇴하면서 3파전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오후 1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는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투표에는 총 256명이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정덕 스님이 127표를 얻어 주지 후보자로 선출됐다. 원경 스님은 6표 뒤진 121표를 받았다. 황석 스님은 2표. 무효표는 6표다.



정덕 스님(사진 가운데)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정덕 스님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어른스님들을 잘 모시고 대중과 화합해 법주사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교구 승려복지다. 우선적으로 승려복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덕 스님은 법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수계하고 은해사 총무국장과 법주사 재무국장, 미륵세계사 주지, 제16~18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법주사=윤호섭 기자

해봉당 자승 대종사 추모다례재
비전 요사채 복원 착공식

대한불교조계종의 선지식이며 상월결사 회주이신 해봉당 자승 대종사 추모 다례재 및 비전 요사채 복원 착공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문도 스님 및 사부대중들께서 두루 동참하시어 더욱 의미있는 법석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68(2024)년 3월 30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안성 칠장사 경내
문 의 | 031-673-0776 경기도 안성시 죽장면 칠장로 399-18

대한불교조계종 칠현산 칠장사 주지 지강 합장